

주체는 실은 주체가 아니다

우리의 주체성, 자유의지는 실은 주체적이지도 자유도 아니고 꽤 많은 부분을 사회의 디자인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 퇴근길에 자동차 핸들을 쥐는 당신은 주체적이고 자유롭지만 실제로는 교통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환경의 제약이 당신을 컨트롤하고 있다.

교통사회의 제약은 일단은 당신의 외부에 있다. 그런데 당신의 외부가 당신의 내부와 교섭하면서 당신은 비로소 행위 가능하다.

당신의 지각도 근육운동도 그리고 동기조차도 환경의 제약하에 있다. 도로의 모양과 방향, 중앙선을 지각하지 않고 거기를 일정한 넓이를 가진 자유로운 거동을 허용하는 황야로서 운전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폭주족의 폭주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당신의 두 눈과 양팔의 근육은 늘 도로의 형태와 중앙선이라는 사회의 디자인과 계속 공동 작업을 한다. 즉 협력을 하는 것이다(비고츠키의 협력의 개념의 진수는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오른발의 근육은 속도제한과 속도계의 제어를 받는다.

제한속도를 넘어 네비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조금 떼기 시작한다. 속도가 떨어지면 바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교통사회와의 협동을 계속한다.

전신의 지각계와 운동계가 긴밀하게 연대하면서 교통법규와 그 구현인 도로의 형상과 표식, 신호와 같은 사회의 디자인과 상호행위(interaction)를 하면서 우리는 운전을 한다.

거기는 황야가 아니다. 그리하여 주체성도 자유의지도 사회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인간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혹은 분석하는데 있어 먼저 '나'를 출발점으로 삼는 태도는 비고츠키의 용어를 빌리자면 '영원한 아이' 혹은 '불멸의 아이(eternal child)'를 분석단위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한 아이라는 메타포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다대하게 받은 사르트르식으로 말하자면 타인과 사회문화역사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즉자(卽自)적 존재 혹은 자기충족적(self-contained) 존재를 의미한다. 영원한 아이는 피아제 심리학을 비롯해서 비고츠키 당대의 행동주의심리학 등을 겨냥해서 비고츠키가 만든 메타포이다. 마르크스 식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즉자적 인간관은 천동설적인 인간관 즉 개체 내부에 인간의 본질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을 지향하는 인간관이다.

반면에 역사적인 아이는 사회문화역사와 농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해 가는 사회문화적 사이보그(박동섭)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 사르트르식으로 말하자면 대자(對自)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자적 인간관은 마르크스 식으로 말하자면 지동설적인 인간관 즉 다양한 사회문화역사라는 매트릭스 위에서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서 혹은 주체는 주체로서 존재가능하다는 인간관을 의미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영민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사르트르가 해명하는 인간도 유사한 궤적을 그린다. 대자(對自) 존재인 인간의 고유성은 무엇보다도 의식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의식은 세상 속에 들어 있는 또 하나의 즉자적 대상이 아니다. 이미 현상학의 지향성 개념 분석에서부터 잘 알려져 있듯이 의식은 즉자적으로 충만해 있는 폐쇄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결핍'으로서 나타나며, 의식이 필연적으로 사물을 지시한다는 사실에서 이 결핍의 형식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대자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인 의식은 스스로를 벗어나는 탈자성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폐쇄적 충만성을 포기한 채 영원한

결핍태로서 머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김영민 『컨텍스트로, 패턴으로』 중에서)

즉 역사적인 아이는 존재의 폐쇄적 충만성을 포기한 채 영원한 결핍태로서 머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는 메타포인 것이다.

그런데 이 인간은 즉자적 존재인가 아니면 대자적 존재인가의 대비를 위해 비고츠키가 사용한 ‘영원한 아이’ vs ‘역사적인 아이’의 대비가 최근에 국내에서 비고츠키의 저작을 번역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협력의 교육학’을 주장하고 있는 국내의 비고츠키 연구자들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비고츠키는 학습자의 영원한 어린이성의 허구를 비판하고 역사적인 어린이성, 이행하는 어린이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원래 그런, 관념적인, 영원한 어린이의 모습이 실재가 아님을 체계적으로 입증했다. 실재 어린이가 전면적 발달을 위한 발달의 경로를, 특히나 교육을 위해 발달의 중심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천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어린이상을 지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실재적인 어린이상으로 대체했다. 발달의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발달 경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서 진정한 개별화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학습자 중심 교육’은 아직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다고 봐야한다.<생각과 말>

번역의 부실함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비고츠키의 '역사적인 아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진정한 개별화 교육' 혹은 '학습자 중심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비고츠키 저작을 번역했음에도 말이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비고츠키가 말하는 '영원한 아이' 그리고 '역사적인 아이'라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개별화 교육 운운 혹은 학습자 중심 교육 운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인간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주류 심리학이 분석대상으로 삼은 사회문화역사로부터 유리(遊離)된 개체 혹은 ‘영원한 아이’를 지양하고 그 대신에 무엇을 분석대상(예컨대 역사적인 아이 혹은 순간 순간을 사는 아이)으로 삼아야 할것인지와 같은 인간철학의 문제이다.

주체는 즉자적 존재가 아니라 대자적 존재이다. 말을 바꾸면 주체는 타자와 도구와 상황과의 협력의 산물이다. 즉 주체는 실은 주체가 아닌 것이다.